

# 20세기 초두의 평화론

## -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와 『대동서』를 비교하며 -

HUANG CHUNJIE (광동외어외무대학)

### 들어가며

20 세기에 나타난 평화론을 함께 구축한 대표적인 서적으로, 1901 년에 간행된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의 『20세기의 괴물 제국주의(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이하 『제국주의』로 약칭)와 그 이듬해 완성된 kang유웨이(康有爲)의 『대동서(大同書)』을 거론할 것이다. 필자의 단견을 말씀드리면, 비교의 시점에서 두 책을 다룬 예는 볼 수 없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두 책 모두 내셔널리즘을 초월한 코즈모폴리타니즘의 관점에서 동서 사상의 융합을 도모하면서 구축된 평화론이면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원론적 해석 도식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명론이기도 하다. 한편 이 평화론의 기반은 공통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두 책 모두 평화론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문명론으로서는 식민주의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서구 근대의 문명론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책이 어떻게 문명론이면서 평화론으로 성공했는가 하는 의문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답을 찾아내기 위해 비교의 관점에서 두 책의 코즈모폴리타니즘의 형태 및 내셔널리즘 비판 논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두 책의 평화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 1. 제국주의와 대동서의 코즈모폴리타니즘 형태

우선 두 책의 세계 평화를 도모한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국주의』 제1장 「서언」에서 고토쿠는 우선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사회의 이상을 내세운다. 즉, “생각건대 국가 경영의 목적은 사회의 영원한 진보에 있으며, 인류의 전반적 복리(福利)에 있다. 그렇다. 단지 현재의 번영만이 아니라 영원한 진보에 있으며, 단지 소수 계급의 권세가 아니라 전반적 복리에 있다.”(중략) “나는 사회의 진보와 그 기초는 반드시 진정한 과학적 지식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며, 인류의 복리는 그 원천이 반드시 진정한 문명적 도덕으로 귀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절대로 자유와 정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극치는 반드시 박애와 평등이 아니면 안 된다. (115쪽)”

그리고 제5장 「결론」에서 고토쿠는 동일한 입장에서 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제시한다 “세계적 대혁명 운동을 개시하라. 소수의 국가를 변혁하여 다수의 국가로 만들라. 육해 군인의 국가를 변혁하여 농상공인의 국가로 만들라. 귀족 전체의 사회를 변혁하여 평민 자치의 사회로 만들라. 그런 후에야 정의와 박애의 마음이 곧 편협한 애국심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해동포의 세계주의가 곧 약탈적 제국주의를 소탕하고 잘라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196쪽)”

이에 캉유웨이는 이념 제창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까지 제시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측면에서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 국가를 소멸시키고 대신 민선에 의한 세계 「공정부(公政府)」를 설립한다. 그리고 군수공장을 포함해 군비를 일체 철폐하고 경찰만 남긴다. 경제면에서는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 사유제를 폐지하고 공유제를 내세워 공업 고도화를 통해 물질을 풍부하게 만든다. 사회적으로는 남녀 불평등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세계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하며, 게다가 형법이 폐지될 만큼 사람들 모두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므로 사회도 윤리적으로 대단히 향상된다. 즉 물질양면이 완벽해지는 이상향이다.

유학 경서에 그려진 이상 사회의 「대동」설을 발전시킨 이 구상을 관통한 이념을 발췌하면 「과학적 지식」, 「문명적 도덕」, 「자유와 정의」, 「박애와 평등」이라는 고토쿠의 말이 이에 거의 합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책에서 모두, 인류사회의 이상을 민주화, 평화화, 공업화, 공화(公化)라고 주장하지만 『제국주의』의 경우, 명확한 세계 국가 구상의 형태까지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이 긍정되지 않았다.

## 2. 『제국주의』와 『대동서』의 내셔널리즘 비판

고토쿠의 「세계적 대혁명 운동」 제창이든, 캉유웨이의 국가 소멸의 「대동」 세계의 구상이든 전쟁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양측 모두 전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내셔널리즘에서 찾았다.

### 2.1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영국 사상가 J. M. 로버트슨이 1899년에 간행한 『애국심과 제국』에 크게 근거해 집필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애국심을 논한다」라는 제목의 제2장 첫머리에서 고토쿠는 우선 『맹자』의 우물에 빠질 뻔한 유아를 돕는 고사를 인용하며, “애국심은 순수하고 한 점의 사적인 것이 없는 것”, “결코 자기 자신과 가깝거나 먼 것,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것을 따지지 않는 것” 그 본질인 「측은지심, 자선의 마음」이 아니라고 단정한다(117쪽). 결국 「애국심」은 인류 전체의 「공적 입장」과 정면에서 대립하는 사적 감정에 사로잡힌 「사적 입장」에 의한 것이고 배외주의(排外主義)가 그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애국심」의 표현방식으로 고토쿠는 두 가지를 들었다. “타향에 대한 증오(119쪽)”와 “일신의 허영, 허망, 경쟁심(119쪽)”이라는 “극히 경멸스러운 자(118쪽)”가 숨어있는 향토애와 같은 특징이다. 또 하나는 “소위 애국심은 곧 외국과 외국인 토벌을 영예로 삼는 호전의 마음이고, 호전의 마음은 곧 동물적 천성이다. 그리고 ”이 동물적 천성은 호전적 애국심이다(123쪽)”라고 말한다.

「애국심」을 「동물적 천성」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로버트슨의 주장에 의거한 것이다. 오로지 근대에 일어난 영국-프랑스 전쟁, 독일 통일전쟁,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다룬 것은 로버트슨일 것이다. 일본의 「청일 전쟁」 예시는 분명 고토쿠가 덧붙인 것일 것이다. 이 전쟁들을 거론한 방식을 비교해 보면, 고토쿠는, 로버트슨의 「동물적 천성인 애국심」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 분명하다. 즉 유럽의 전쟁을 예로 강조한 것은 「애국심」이 전쟁으로 이어질 필연성, 즉 「호전의 마음」인데 반해 일본의 「청일 전쟁」을 예로 든 것은 「애국심」이 인류에 어긋난 무자비한 폭행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고토쿠의 말을 빌리면 「야수적 살벌의 천성(137쪽)」이다. 이것은 「호전의 마음」을 「동물적 천성」이라고 주장한 로버트슨의 이론에서 발전시킨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전개는 고토쿠의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고토쿠가 정독했을 『맹자』에서 주창한 중심 개념인 「성선설」은 새삼 지적할 것도 없이 인간 존재와 동물을 구별하는 인간 특유의 성질을 둘러싼 언설(言說)이다. 맹자의 「성선설」에 입각해 말한다면 측은지심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질의 하나임에 다름없다. 고토쿠는 그래서 로버트슨에 의해 「동물적 천성」과 동일시된 「애국심」은 측은지심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다.

「애국심」은 「야수적 천성」과 다르지 않고 인간의 도덕성을 추락시킨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고토쿠는 “그의 소위 애국심은 실로 이것이 병균이고 소위 군국주의는 실로 이것이 전염의 매개자”(195쪽)”라고 한 것이다. 즉 「애국심」을 군국주의와의 인과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소위 애국심을 날실로 하고, 소위 군국주의를 씨실로 하여 짤 수 있다. (117쪽)” “영토 확장 정책(170쪽)”으로 파악된 제국주의는 당연히 「애국심」에 의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토쿠는 「식민지 영토의 대확장」에 따른 결과를 “수많은 부정 불의”, “수많은 부패 타락”, “마침내 영락 멸망(170쪽)”으로 예측했다. 「애국심」을 반도덕으로 간주했으므로 「반애국심론」을 기축으로 한 반제국주의론은 논리적 필연의 결과일 것이다.

## 2.2 「대동서」

『대동서』는 인류를 고뇌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생각을 담고 있다. 캉유웨이가 보기에 인간 고뇌의 근원은 「국경(國界)」을 비롯한 「9개의 경계(九界)」의 존재이므로, 이 9개의 경계를 제거해야만 인간을 고뇌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2부에서는 “국경을 제거하고 세계를 통합”한다는 취지로 우선 「국가의 해로움」을 놓고 주장을 전개한다.

「국가의 해로움」으로 우선 꼽는 것은 인간의 목숨을 다수 빼앗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와 전쟁 결합의 필연성에 대해 캉유웨이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세계는 국가별로 나뉘어 흩어지면 사람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자국을 위해서 타국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익을 빼앗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119쪽)” 이를 바꿔 말하면 국가의 존재는 자국의 「나」만을 위한 내셔널리즘의 생성에 필연적으로 이어지고 내셔널리즘이 다시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국가의 해로움」은 끊임없는 전쟁의 참화일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인간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해라고 캉유웨이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진 사람, 의로운 사람(仁人義士)라 하더라도 싫든 좋든 자기 나라에만 충성하고 사물을 보는 시야에 서든, 품고 있는 뜻에 서든 모든 면에서 자기 나라의 입장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진짜 학살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나라 땅을 빼앗는 것, 남의 나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옳고도 더할 나위 없는 공적으로 여기며 노력하고,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고 그것에 힘썼음을 적고자 한다. 인간은 경쟁심과 이기심을

갖게 되면 맹수끼리 서로 죽이는, 강도의 약탈과 다름없는 잔인한 범행을 옳은 행동으로 여기어 저지르기 마련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종류의 행위는 계승되어야 할 좋은 전통이 되어, 대를 이어 행해지고 인간은 마침내 맹수, 강도와 다름없는 근성을 꿀 수 없게 될 것이다. (128쪽)”

고토쿠의 언설과 대비시켜 보면 「국가의 해로움」론은 「애국심」 비판과 거의 겹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애국심」처럼 명백히 도덕과 인도주의에 반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더욱이 도덕과 인도주의를 저버린 것을 맹수나 강도와 다름없는 근성으로 보는 것은 유학자인 Kang Yu-wei로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가라는 정치조직 자체는 내셔널리즘이 생성하는 근본 원인이며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의감 넘치는 어진 사람, 의로운 사람(仁人義士)조차 무자비한 학살자가 되고 만다는 Kang Yu-wei의 지적은 이데올로기 비판에 그친 고토쿠나 로버트슨의 「반애국심론」보다 분명히 예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Kang Yu-wei는 고토쿠와 로버트슨이 착안하지 못한 명확한 세계국가 구상을 대담하게 짤 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 3. 성선설과 문명관

Kang Yu-wei는 측은지심과 같은 뜻인 「불인지심(不忍之心)(사람의 불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이라는 맹자의 말을 자서전을 겸한 서언 제목으로 짓고, 다음과 같이 문명-야만이라는 이원적 대립을 통해 불인지심(不忍之心) 소중함을 설파한다. “사람이 사람의 불행을 그냥 지나친다면 어찌 되겠는가? 인간은 인간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명이 소멸되고 야만으로 돌아간다. 그다음은 야수 본연의 성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4쪽)”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인간과 동물을 도덕의식의 유무에 따라 구별하는 성선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고토쿠도 이와 비슷한 것을 말했다. 즉, “19세기 중엽에 있어 한 번 노예의 영역에서 벗어난 수많은 인류를 황당무계한 애국심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노예로 몰락시킬 뿐만 아니라 야수의 처지에까지 빠뜨리려고 한다(142쪽).” 상술한 바와 같이 고토쿠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론이라는 방법론을 포함한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하여, 로버트슨의 「동물적 천성인 애국심」론을 더욱 발전시켜 「성선설」의 반인도적 성격을 보다 명료화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고토쿠는 Kang Yu-wei처럼 문명이 파괴된 결과를 「야수의 처지」에 빠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두 사람이 근대 문명적 이념을 수용했다고 해서 근대문명주의자로서의 도덕관을 키웠다고보다는 유학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근대 문명적 이념을 수용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 4. 끝으로

상술한 바와 같이, 고토쿠 슈스이와 Kang Yu-wei의 문명관에는 측은지심 혹은 불인지심(不忍之心)이라는 확고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와 『대동서』는 단호히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론·평화론으로 성립된 것이 분명하다. 측은지심 또는 불인지심(不忍之心)은 박애라는 근대 문명적 이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성선설에 의한 박애주의는 생명 지상주의가 기반임을 주목하기 바란다.

(번역책임자:양효진)